

한국 고전시가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

— 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

成 昊 慶

- | | |
|----------------------------|------------------------|
| 1. 서 론 | 2) 고려시대의 시가 |
| 2. 중국시가의 발달과 한국 이입 | 3) 조선시대의 시가 |
| 1) 중국 시가장르의 발달 | 4.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의 특징과 의의 |
| 2) 한국의 중국 시가장르 수용 | 1) 특징 |
| 3. 한국시가 각 장르들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 | 2) 의의 |
| 1) 삼국시대 및 신라시대의 시가 | 5. 결 론 |

1. 서 론

上古代부터 19세기까지 한국 고전시가는 다양한 장르들의 형성과 발달을 보였는데, 그 형성 및 발달의 요인에는 한국시가 자체의 내부적 전통의 계승 및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시가의 수용에 따른 외래적 영향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고전시가 각 장르들의 형성 및 발달의 요인을 구명하고 그 여러 장르들이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연관되며 이루었던 전체 시가사나 장르체계 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 장르들에 끼친 중국 시가장르들의 영향을 밝히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41-A00084).

한국 고전시가의 여러 장르들에 끼친 중국 시가장르들의 영향을 갖추어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비교문학적 연구가 형식, 표현법, 주제·제재(소재), 사상·정서, 문학이론·문예사조 등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각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한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연구와 더불어 전체 시가사를 통시적으로 살피거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는 종합적 연구도 필요하다.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인 1920년대 이래 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전시가의 발달사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로 내부적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세했기에, 중국시가의 수용에 따른 외래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된 편이다. 그리고 간간이 이루어진 연구도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나마 특정한 장르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시가사 전체를 통시적으로 살피거나 전반적인 양상을 살핀 종합적 연구는 드물다.

그 동안의 개별적 연구에서는 논거 제시가 불충분한 채로 부분적인 유사성 대비를 통해 영향을 규정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이 결과로 중국시가의 영향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한국 시가장르가 중국 시가장르의 이식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 등의 문제점을 적지 않게 지닌 데다가, 그 성과의 축적도 부족한 편이다.¹⁾ 그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는 종합적 연구도 충실을 기하기 어려워서, 뚜렷한 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논의를 펼침으로써 그 결과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²⁾

- 1) 그 동안의 연구동향에 대하여는 李慧淳, 『比較文學 I』(中央出版印刷株式會社, 1981)·『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黃涇江·金容稷·趙東一·李東歡 編,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68~75면); 成昊慶, 『한국 고전시가의 비교문학적 연구, 동향과 전망』(『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409~432면) 등을 참고할 것.
- 2) 이러한 종합적 연구에서 초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趙潤濟, 『國文學概說』(東國文化社, 1955)의 '제4편 通論 제3장 국문학과 외국문학과의 교섭 제1절 국문학과 한문학과 교섭'을 들 수 있는데, 그 논의에서는 한국시가가 전적으로 중국시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년의 韋旭昇, 『中國文學在朝鮮』(1990), 李海山·禹濟濟 譯, 『韓國文學에 끼친 中國文學의 影響』(亞細亞文化社, 1994)에서는 중국시가의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시가의 건설적인 창조와 독자적인 발전에 유의하기도 했다.

한국 고전시가장르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더 이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불충분하나마 지금까지의 여러 개별적 연구의 성과들을 검토하고 보완, 정리하여 중국시가의 영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새로 종합하여 살펴으로써 한국 고전시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중국의 시가장르들이 한국 고전시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끼친 영향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되는 몇 국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여러 시가장르들이 발달한 양상과 우리나라에 移入되어 수용된 과정을 간략히 개관한 뒤에, 한국 고전시가 각 장르들에 끼친 중국 시가장르들의 영향의 양상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검토하며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의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受信者(수용자)의 視點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결정 요인이나 문학사의 추진력으로는 형식이 내용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³⁾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고찰에서 형식(시적 형태)을 위주로 하여 논의를 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개별적 연구의 성과 축적이 불충분하므로, 이 고찰의 결과도 불충분함을 적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분량의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자세히 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필자는 이 고찰을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해 디딤돌이 될 한 試論으로서 수행하고자 한다.

2. 중국시가의 발달과 한국 이입

1) 중국 시가장르의 발달

중국시가의 가장 오래된 유산은 孔子(BC 551~479)가 정리하여 편찬한

3) Victor Erlich, *Russian Formalism*, 박거용 역, 『러시아 形式主義』(문학과지성사, 1983), 327면;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82), pp.62~64 등 참조.

『詩經』에 실려 전하는 작품들이다. 그 가운데는 대략 서력기원전 11세기부터 서기전 6세기 사이에 黃河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의 각 지방에서 유행했던 민요(風)가 많으며, 연회나 의식에서 노래 불렀던 가사(雅)와 조상 제사에서 노래부르던 頌歌(頌)들도 있다. 그 작품들은 자유형의 시이지만, 4言 4句로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이며, 대체로 押韻이 되어 있다.

그 뒤 남방의 楚나라에서 屈原(BC 343~290?)이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가인 楚辭를 탄생시켰다. 초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장편시가로서, 句法은 ‘○○兮○○’와 ‘○○○兮○○’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시경』의 시들이 거의 모두 무명씨 작으로서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제재를 다룬 데 비해, 초사는 개인의 창작으로서 개인적인 사상과 정서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초사는 본래 『시경』의 시와 마찬가지로 노래로 불렸으나, 차차 낭송하는 것이 되어가서 漢代(BC 206~AD 220)에 들어서는 거의 가창하지 않게 되었다.

한대 초기에 초사를 계승한 賦가 생겨나 武帝 때(BC 141~87) 크게 성행하였다. 부에서는 차츰 산문적인 요소가 늘어났으며, 개성적인 면이 사라지고 사물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부는 후세에 排賦·律賦·文賦로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春秋·戰國時代(BC 5세기~BC 3세기) 동안에 중국의 음악이 적지 않게 변했기에, 옛 詩體에 따른 작품들은 달라진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기가 어렵게 되어 갔다. 이 때문에 한대에 들어 민요(民歌)에 뿌리를 둔 樂府詩가 지어지게 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지니던 악부시는 점차 5言으로 정형화 되어가서, 마침내 古詩(古體詩)와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악부시의 변질로서 5언 고시가 2세기 무렵에 완성되었고, 7언 고시도 6세기 말 무렵에 이루어졌다. 이들 고체시에서는 句數의 제한이 없고, 平仄에서 뚜렷한 규칙이 없으며, 압운에서도 융통성이 있었다.

南北朝時代(4세기초~6세기말)에 중국의 음악이 크게 달라졌는데, 특히 북방의 음악은 西域음악의 지대한 영향으로 一變하였다. 그 때문에 전통 시가를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가계는 노래함을 포기한 시와 노래할 수 있는 시의 두 갈래로 따로 정립되어 갔다.

노래함을 포기한 시로는 近體詩(今體詩)가 唐代(618~907)의 초기에 성립되었다. 고체시를 달라진 음악에 맞추어 노래할 수 없게 되자, 상층 시가계에서는 5세기말 무렵부터 음악과 절연하고 聲韻의 諧和와 형식미를 한껏 추구한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실로서 7세기말에 律詩(4韻 8句)가 정립되고, 뒤이어 絕句(2韻 4句)도 이루어졌다. 이 근체시는 시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평측 배열방법과 압운법, 그리고 시편의 句數와 각 구의 성격(起承轉結 등)이 매우 규범화된 시이다. 근체시는 盛唐(8세기 전반)에 들어 李白(701~762)과 杜甫(712~770) 등의 위대한 시인들이 속출하여 뛰어난 작품들을 남기면서부터 중국시의 대표적인 시형으로 자리잡아 이후 문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갔다.

한편, 악부시의 계통을 이은 노래할 수 있는 시가로는 詞가 시와 음악이 완전히 분리된 뒤인 성당 무렵에 민간가요의 형식을 따라 생겨나서 宋代(北宋: 960~1127, 南宋: 1127~1279)에 성행하게 되었다.

宋初까지 유행한 시는 거의 모두 짧고 간단한 小詞였으나, 柳永(1045년 전후) 등이 긴 慢詞를 유행시켰다. 그 뒤 蘇軾(1036~1101) 등에 의해 사는 여성적이고 감상적인 기풍을 벗어나 풍부한 내용의 시로 발전하게 되었고, 周邦彥(1057~1121) 등에 의해 음률에 맞는 詞體가 완비되자, 이후 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달하였다. 당대의 사에서는 단일한 小曲으로 이루어진 單調體에다 각 시행들의 글자수가 같은 齊言體가 많았으나, 10세기부터 두 곡이 결합된 雙調體로 변하고 장단의 변화가 많은 자유로운 句形을 보이게 되었다(이 때문에 사를 ‘長短句’라고도 함).

사는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면서 格律이 매우 엄격해져서, 문인들도 창이나 개성을 살리기 어려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가에 대한 갈망으로 散曲이 대두되었다.

남송대에 생겨난 南曲은 남송의 멸망에 따라 곧 쇠퇴하였고, 중국을 지배하게 된 몽고인들이 새로운 악기와 악곡을 들여오자 북방음악에 따른 北曲이 나타났다. 元代(蒙古: 1206~1271, 元: 1271~1368)에는 북곡이 성행했지만, 明代(1368~1662)에 들어서자 남곡이 성행하게 되었다.

산곡은 사와 마찬가지로 민간가요로부터 발전한 악부 계통의 가사인 데다

그 발달했던 시대도 가까우므로, 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 산곡도 짧은 小曲에서 출발했으나, 뒤에는 그것이 반복된 重頭와 합성된 帶過曲이 나타났고, 또 여러 곡을 모아 한 組曲을 이룩한 套數도 생겨났다.⁴⁾

2) 한국의 중국 시가장르 수용

漢字가 서기전 3세기 무렵에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漢四郡시대(BC 1세기 전후)를 거쳐 서력기원 무렵에 이르러 한자 및 한문의 접촉과 수용은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⁵⁾

新羅·高句麗·百濟의 三國은 고대국가로 성장하여 중국의 남북조와 빈번히 교류하면서부터 중국문화를 활발히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고구려와 백제가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여 4세기 무렵에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음에 비해,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가 6세기부터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중국의 시가문학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7세기초 무렵에 『文選』(6세기초 梁의 昭明太子 蕭統 撰)이 유입되자,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한문학의 교범이 되었고,⁶⁾ 8세기말부터는 관리 등용에서의 주요 과목이 됨에 따라⁷⁾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선』에는 5세기말까지의 중국의 여러 문학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삼국 및 통일신라의 문인들이 주로 받아들여 익혔을 대상은 시가이고, 특히 그 주류를 이루는 5언 고체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다량으로 실린 賦도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다소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⁸⁾

4) 이상은 胡雲翼, 『中國文學史』(張基樞 역,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61); 金學主, 『中國文學概論』(新雅社, 1977); 文璇奎, 『韓國漢文學』(二友出版社, 1980) 등의 여러 논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5) 黃渭周, 『漢文의 初期 定着過程 研究(2)』, 『大東漢文學』 13(大邱: 大東漢文學會, 2000), 89~122면 참조.

6)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高(句)麗’조의 “俗愛書籍…其書有五經及…又有文選尤愛重之” 및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強首(7세기 중엽)’전의 “及壯…遂就師 讀孝經·曲禮·爾雅·文選” 참조.

7) 『삼국사기』 권10 新羅本紀10 元聖王 4년(788)조의 “春 始定讀書三品 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 爲上…” 참조.

신라의 한반도통일(668년) 직후부터 당의 근체시가 유입되었고, 9세기말부터는 晚唐(9세기 중·말엽)의 唯美主義의 詩風을 위주로 하여 활기를 띠게 되었다.⁹⁾

중국시가의 실제적이고도 본격적인 수용은 고려시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

고려초에도 신라말의 문풍이 계승되어 만당시풍의 근체시가 성행했는데, 光宗 9년(958)에 과거를 시행하면서부터는 문인과 학도들이 근체시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賦 창작도 과거시험 과목에 부가 들어간 뒤로 다소 활기를 띠게 되었지만, 전문적인 작자가 없이 시인들이 作詩의 여가에 짓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11세기말 무렵부터 송의 詞가 그 음악(詞樂)과 함께 전래지기 시작하여, 북송대의 작품들이 12세기초까지 고려에 소개되었다.¹¹⁾ 궁중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되던 시는 이후 일반 문인들에 의해서도 간간히 지어지게 되었지만, 우리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부를 수 없는 것인 데다 대다수 우리나라 문인들로서는 그 음률을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 창작은 대체로 형식적인 模作에 불과한 편이었다.

고려가 약 30년간의 항쟁 끝에 高宗 46년(1259)에 몽고(元)에 항복하고 90여 년간 그 간섭을 받는 동안, 양국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려 사회는 다

8) 李善 注本 전 60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賦 57수(권1~19), 詩(古詩) 443수(권19~31), 騷(楚辭 계통) 17수(권32~33), 七(賦의 일종) 24수(권34~35), 辭(楚歌 계통) 2수(권45) 등이 실려 있다. 이에서 편수로는 시(고시)가 가장 많고, 분량에서는 辭·賦류가 가장 많다.

9) 李慶善, 『中國文學의 수용과 영향』, 『韓國文學과 傳統文化』(新丘文化社, 1988), 188~189면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전반기까지는 『문선』을 중심으로 한 중국문학 수용이 주로 실용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다가, 후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唐을 근간으로 한 중국문학의 충실한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遣唐留學生·賓貢諸子(중국과거 급제생)들의 귀국과 사신 왕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10) 같은 책, 189면에서는 그 원인으로 고려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과 사상적 자유로움을 들었다.

11) 『高麗史』 樂志에는 大曲 7곡과 小曲 41곡의 사 작품들이 전하는데, 그 小曲들 가운데서 작자가 밝혀진 15수(柳永 작 8수, 기타 7명 작 7수)는 모두 북송대의 작품들이다. 李明九, 『高麗歌謠의 研究』(新雅社, 1973), 170~172면, 196면 참조.

방면에 걸쳐 원 문화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 당시 중국에서 성행하던 예술이 광범위하게 고려에 들어왔는데, 元代의 시가장르인 散曲도 그 음악과 함께 유입되어 고려시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10세기 후반 이래 근체시만을 존중하게 된 漢詩壇의 경향은 고려말까지 이어졌고, 그 시풍으로는 13세기부터 理智的·서술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宋詩風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하였다.¹³⁾

조선시대에는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중국제 한국시’로서의 성격도 적지 않게 지니게 된 근체시를 비롯하여 기왕에 수용된 바 있던 몇몇 중국 시가장르들이 계속 수용되거나 또는 재수용되는 양상을 보였을 뿐, 새로운 장르의 이입 및 수용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3. 한국시가 각 장르들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

1) 삼국시대 및 신라시대의 시가

우리나라의 상고대 시가 작품들인 <公無渡河歌>(〈筊篲引〉)·<黃鳥歌>·<龜旨歌>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지어졌다. 이 무렵에 한자 및 한문의 접촉·수용이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에까지 확대되었으니, 그 창작에 중국시가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4言 4句의 모습으로 漢譯되어 전하는 그 작품들이 『시경』의 4행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12) 元曲 가운데서 雜劇(戲曲)이 고려에 유입되어 상류층 사회에서 애호되었다는 사실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남에 비해 散曲의 경우는 명시적인 기록을 찾기 어렵지만, 여러 기록들의 斷片들을 종합하고 고려시가 작품 내외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산곡이 고려시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고려시가에 끼친 元 散曲의 영향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12(국어국문학회, 1994), 재수록: 成昊慶,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慶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251~255면을 볼 것.

13) 16세기 후반에 唐詩(특히 성당의 시) 숭상의 풍조가 일기도 했으나, 조선 전기의 대다수 문인들은 여전히 송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15세기 무렵에 대두된 杜甫 詩 숭상도 당시에 대한 애호라기보다는 宋詩에 대한 애호와 맥락을 같이 한 것이라고 한다(車柱環, 『시가를 통해 본 韓中文學思想』, 東方文學比較研究會 編, 『轉移와 受容』, 學文社, 1985, 577~580면).

나타나기도 했다.¹⁴⁾ 그러나 우리말로 이루어졌을 그 원작의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 문제를 뚜렷이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원작들이 한역시처럼 4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4행 형식을 『시경』의 4행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4행시는 범세계적으로 시가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점은 6세기말 무렵부터의 작품들(<薯童謠> 등)이 전하는 신라의 민요형 시가인 이른바 4句體 鄉歌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6세기면 『시경』체 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¹⁶⁾ 그 4행 형식 이외에는 양자간에 공통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의 영향 관계의 성립을 말하기가 어렵다.

詞腦歌(이른바 10구체 향가)의 경우에도 6세기말의 작품(<曄星歌>)이 전하는데, 6세기까지는 이와 유사한 중국 시가장르의 유입이 없었으므로 그 발생에서 중국시가의 영향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뇌가의 성장기라고 할 7세기와 융성기인 8세기에는 그 발달에 중국 시가장르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7세기초 무렵에 『문선』이 들어와 이후 신라의 문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된 8세기에 들어서 <讚耆婆郎歌>·<祭亡妹歌> 등의 수준 높은 사뇌가 작품들이 지어졌던 것이다.

『문선』에 실린 시가 작품들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辭(騷) 및 賦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서 핵심적인 요소 또는 부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면과 문학적 성격 면에서 사뇌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그 작품들 간에 주제 및 제재 면에서나 표현 면에서의 유사성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편임).¹⁷⁾

14) 丁奎福, 『韓國文學과 中國文學』, 『韓國學報』 3(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4), 재수록: 丁奎福, 『韓中文學比較의 研究』(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5~6면 참조.

15) 4행시는 동아시아의 시에서만 아니라 유럽 시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한다. Alex Preminger, Frank J. Warnke, and O. B. Hardison J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Enlarged Edi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75), p.684 참조.

16) 丁奎福, 앞의 글, 5~6면에서는 향가의 4행시도 『시경』의 4행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17) 첫째, 형식 면에서 양자는 비슷한 詩篇 구성방식을 보인다. 사·부는 대체로 ‘序·本·結語’의 3段으로 구성되고, 그 결어가 보통 ‘亂曰’이나 ‘糸曰·重曰·歌曰’

그리고 사녀가 작품이 아직 지어지고 있던 때인 967년에 당시의 최상급 문인(翰林學士)이던 崔行歸가 均如의 사녀가 작품 <普賢十願歌>를 부와 비교하여 두 장르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¹⁸⁾ 이에 양자간의 그 유사성은 우연한 일치이기보다는 영향 관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녀가는 본디 신라 사회의 독자적 문학 환경 속에서 자생한 고유 의 시가장르이지만, 그 성장과 융성 등의 발전에서 중국의 시가장르인 부의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¹⁹⁾

2) 고려시대의 시가

고려시대에는 11세기말 무렵부터 12세기초까지 宋의 詞가 들어왔으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 元의 散曲이 이입되었는데, 이 사와 산곡이 고려의 시가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

일찍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려시대의 시가 특히 景幾體歌에 끼친 사의 영향에 주목해 왔다.²⁰⁾

사의 영향을 살핀 대표적인 연구로서, 李明九는 고려시대에 宋樂 및 宋詞가 유입되어 귀족사회에서 유행하였고 당시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등의 虛頭로 시작하며 全篇의 뜻을 요약하는 것이 보통인데(金學主, 앞의 책, 133면), 사녀가도 일반적으로 전 ‘10구’가 ‘제1~4구/ 제5~8구/ 제9~10구’의 3단으로 구성되며, 그 제3단은 허두에 ‘阿也·阿耶’ 등의 감탄사가 놓이고 앞의 시상을 종합하거나 전환하여 주제를 드러내며 전편을 맺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문학적 성격의 면에서도 양자는 유사하여, 사부가 주로 지식인(문인)층 사람들의 개인적 사상·정서를 개성적으로 표현한 시가인 것처럼, 사녀가도 대체로 지식인층에 의한 개인적 서정시이다.

18) “十一首之鄉歌 詞淸句麗 其爲作也 號稱詞腦 可欺貞觀之詞 精若賦頭 堪比惠明之賦”(『均如傳』 제8 譯歌現德分者, ‘崔行歸 譯歌序’).

19) 趙潤濟, 앞의 책, 431면에서는 사녀가 등의 향가의 성립이 전적으로 한문학(중국 문학)의 영향이라고 보았지만, 그 논거로 든 漢文化에 젖은 그 시대인의 생활의 반영이라는 점과 한문학적 교양이 향가를 갖게끔 만들었다는 점은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매우 막연하고 불충분한 것들이다.

20) 金台俊, 『別曲의 研究(1)~(3)』, 『東亞日報』 1932. 1. 15~17; 趙潤濟, 『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48), 64면 등.

송악에 맞추는 宋詞風의 시가로서 귀족적 자부심에 맞는 漢文句를 많이 쓰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의 韻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無韻의 새로운 가사를 창작하고, 이를 송사의 모방인 聯章體로 노래했을 때 <翰林別曲>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¹⁾ 또 고려속요 가운데서 연장체(聯形式)로 된 작품들도 송사 연장체의 모방 내지 영향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²²⁾ 이러한 송사 영향설의 주요 논거는 경기체가와 고려속요의 연형식이 사의 연장체와 유사하다는 것과 경기체가 작품들에 많이 나타나는 한문구가 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에서 聯章詞는 작자가 매우 드물었던 데다가 오래지 않아 없어지고 만 것이었으므로,²³⁾ 고려 후기의 경기체가나 속요 작품들에 나타난 연형식이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체가 작품들에서 다수 나타나는 한문구도 사의 長短句의 句法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므로, 그 한문구를 사와 관련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12세기 무렵 이래의 고려 문인들의 사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고려할 때, 이후의 고려시가에 송사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타당성 있는 논거를 뚜렷이 제시하거나 그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13세기 후반부터 원의 문화가 고려의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의 散曲이 고려말·조선초의 시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가 1980년대에 들어 제기되었고, 이후 이에 따른 연구가 얼마간 이루어졌다.²⁴⁾

21) 李明九, 『景幾體歌의 形成過程 小考』, 『論文集』 5(成均館大學校, 1960), 재수록: 李明九, 앞의 책, 49면.

22) 李明九, 『麗謠의 形態의 分類 試論』, 『越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新雅社, 1964), 재수록: 같은 책, 150면.

23) “聯章詞 作者甚少 歷傳不替 惟散詞耳”(楊尙時, 『詞學纂要』, 臺北: 華國出版社, 1956, 19면) 및 “所謂聯章詞等 或已佚亡 或入爲曲 要亦無得而稱焉”(余毅恒, 『詞筌』, 臺北: 正中書局, 1966, 16면) 등 참조.

24) 成昊慶, 『“腔”과 “葉”의 성격 推論』(『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論叢』, 창작과비평사, 1983)·『고려시가에 끼친 元 散曲의 영향에 대한 고찰』(1994)·『元 散曲이 한국 시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韓國詩歌研究』 3, 한국시가학회, 1998); 成鎬周, 『경기체가와 散曲과의 대비적 고찰』(『문학한글』 2, 한글학회, 1988) 등.

成昊慶은 산곡이 고려말의 각종 시가 양식에 끼친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폈는데, 그 가운데서 문학적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곡 帶過曲의 ‘前段+後段’ 구성이 고려시가의 ‘前節+後節’ 구성에 끼친 영향

산곡의 小令에서 단일한 곡조로 된 小曲이 너무 간단하고 짧아서 작자의 뜻과 느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을 때, 두 調를 합성시켜 한 곡의 노래로 만든 帶過曲이 생겨났다. 그 ‘前段+後段’ 구성에서는 후단이 전단보다 긴 것이 많지만 전단보다 짧은 예도 있는데, 그 양상은 13세기 후반 이래 나타난 경기체가 작품들²⁵⁾과 <雙花店>(1299년경 작)의 각 연 내의 ‘전절(大)+후절(小)’의 구성과 비슷하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두 詩節들간의 결합 양상은 그 앞시대 시가(사뇌가, <思母曲> 등)의 경우와는 적지 않게 차이를 보이며, 詞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낮으므로,²⁶⁾ 산곡의 직접적인 영향이거나 또는 우리 시가의 전통에다 산곡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곡의 重頭가 고려시가의 聯形式에 끼친 영향

산곡의 소령에는 같은 한 조의 곡을 중복시켜 연속되거나 동류에 속하는 일이나 사물을 표현 서술하는 重頭도 성행했는데, 이는 첫절의 악곡을 제2절 이하에서 반복하는 有節形式(strophic form)의 악곡구성에 따라 두 수 이상을 한 편의 연형식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려 후기 시가 작품들의 시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연형식의 구성인데, 연형식으로 된 고려시가 작품들의 대다수는

25) 현전하는 最古의 작품이라는 <翰林別曲>이 13세기 후반 이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翰林別曲>의 창작시기 論辨』, 『韓國學報』 49(一志社, 1989), 제수록: 成昊慶, 앞의 책, 114~138면을 볼 것.

26) 詞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雙調(體)’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사의 ‘前段+後段’ 구성에서는 전단과 후단이 대칭을 이루거나 후단이 긴 것이 절대다수이며(吳熊和, 『唐宋詞通論』,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5, 92면 등 참조), 그 각 악곡이 대체로 같은 곡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성은 경기체가 작품들 각 연에서의 ‘전절(대)+후절(소)’ 구조와 그 각 악곡의 상이 현상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산곡의 중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연형식은 모든 나라·문화권의 시가에 나타난 보편적인 양식이어서 13세기 전반까지의 우리 시가에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이 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던 13세기 후반 이래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²⁷⁾에 주목해야 한다. ‘노래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연형식 시가의 발달 배경에는 당시 고려의 음악문화의 발달이 있었고, 이는 원의 음악의 영향을 많이 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원의 음악은 산곡 및 잡곡의 발달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려 후기의 연형식 시가들은 선행하던 우리 시가의 전통을 계승한 면도 없지 않을 터이나, 당시 중국에서 성행하던 산곡과 그 음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13세기 후반 이래 크게 발달, 성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산곡 套數의 구성방식이 고려시가의 非聯體 구성에 끼친 영향

산곡에는 소령에서 나아가 둘 이상의 곡들을 이어서 大曲을 형성한 套數(散套)가 있다. 그 길이는 자유로워서 3, 4개의 곡으로 된 작품도 있고 수십 개의 곡으로 된 작품도 있는데, 그 끝에 尾聲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몇 개의 짧은 산투가 결합되어 보다 큰 산투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산투와 유사한 구성방식을 지닌 고려시가 작품에 비연체 장편인 <處容歌>가 있는데, 이는 세 개의 산투를 이은 것을 중첩하여 모두 여섯 개의 산투가 합쳐진 양상과 비슷하다. 그 구성방식은 이전의 우리 시가에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앞시대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사는 套를 이루는 예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²⁸⁾ 사(成套詞)의 영향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그 형성에는 산곡 투수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산투의 구성방식은 그 다양한 양상을 통해 <滿殿春>·<鄧石歌> 등 몇몇 연형식 작품들의 구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²⁹⁾

이와 같이 13세기 후반 이래의 고려시가에는 시편의 구성방식에서 산곡과

27) 고려시대의 대다수 연형식 작품들은 고려 후기 특히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까지 동안에 지어졌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成昊慶, 『高麗詩歌의 類型分類과 장르적 處理(上)』, 『人文研究』 13-1(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1), 제수록: 成昊慶, 앞의 책, 211~220면 참조.

28) 盧冀野, 『詞曲研究』(上海: 中華書局, 1924), 87면 참조.

29) 成昊慶, 『元 散曲이 한국시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242~243면 참조.

의 유사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 형식을 계승한 15세기 시가의 일각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³⁰⁾ 이는 산곡이 영향을 끼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려말의 <三藏>(〈雙花店〉의 제2연에 해당)과 조선초의 경기체가 작품 <華山別曲>(卞季良 작)을 ‘新聲’과 ‘新調’에 따라 노래하거나 지었다고 한 데³¹⁾서 그 ‘新聲·新調’는 13세기 후반부터 유입되어 성행하던 元의 음악 계통의 곡조를 가리킨 바일 터인데,³²⁾ 그러한 음악에 따라 원대에 성행한 시가가 산곡이니 만큼, 앞의 작품들에 산곡이 그 음악과 함께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편 구성방식 면에서의 유사성 이외에 주제 및 제재나 표현 면 등에서의 유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려 후기 시가의 형성 및 발달에는 산곡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가 다소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조선시대의 시가

(1) 時調

시조의 발생시기가 고려말이든 조선초든 간에, 시조는 元代까지의 중국시가의 여러 장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 생겨나 발달한 장르이다. 또 그 주된 담당층(작자 및 향유자)은 한문학을 숭상하고 중국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던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그러므로 시조의 발생 및 발달에 그 담당층이 애호하던 한시(특히 근체시)나 중국시가의 영향이 다소간 있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시조의 발생 및 발달에 한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일찍부터 나타났다.³³⁾ 이들 한시 기원설 또는 한시 영향설은 대체로 한시의 시상 전개

3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같은 글, 230~252면을 볼 것.

31) “王狎昵群小 嗜好宴樂 倖臣吳祿·金元祥·內僚石天補·天卿等…別作一隊 稱爲男粧 教以新聲 其歌云 ‘三藏寺裏點燈去…’ 又云 ‘有蛇含龍尾…’”(『高麗史節要』 권22 忠烈王 25년 5월) 및 “先生[卞季良] 嘗作新調 歌詠兩宮之慈孝 形容一代之治功”(權踰, 『春亭集』 舊序) 참조.

32) 成吳慶, 『고려시가에 끼친 元 散曲의 영향에 대한 고찰』, 251~254면 참조.

33) 安廓, 『時調의 淵源』, 『東亞日報』 1930. 9. 24; 丁來東, 『中國民間文學概論 讀後感』,

방식(起承轉結)이 시조의 그것과 상통한다는 점,³⁴⁾ 시조의 한 구가 7음절이나 5음절(중장의 첫구)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한시의 7언 또는 5언의 영향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³⁵⁾ 그리고 한시에 懸吐하거나 한 시를 번역하여 만들어진 시조가 많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시조의 3章 구조와 한시 절구의 ‘기승 전결’의 전개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데다,³⁶⁾ 시조의 구성원리인 3단 구성에 의한 선행 형태가 우리 시가사에서 다수 확인되고, 또 7언 절구에 토를 달아 시조를 만들 경우의 각구의 음절수(최소한 8~9음절)가 실제 시조에서의 각구의 음절수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한다.³⁷⁾ 그리고 한시의 번역이라는 것도 시조 발생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조시형이 한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견해나 시조의 형태가 한시 형태의 영향을 입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부당하다고 한다.³⁸⁾

이처럼 시조의 발생(형성) 및 발달에 한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 영향의 양상을 뚜렷이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시조가 초기에 사대부들에 의해 생겨나서 발달한 장르이고 그 담당자들이 한시의 창작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조의 발달에 한시가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은 부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조 작품들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 漢詩句의 인용이나 人名·地名·故事의 나열 등은 분명히 한시가 제재(소재) 및 시어 선택 면에서 영향을 끼친 바이고,³⁹⁾ 또 표현 면에서도 시조는 한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⁴⁰⁾ 그리고 적지 않은 시조 작품들에서

『東亞日報』 1931. 12. 27; 朴晟義, 『韓國詩歌와 漢詩文』, 『文理論集』 1(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1955); 丁奎福, 앞의 글 등.

34) 丁奎福, 앞의 글, 7면.

35) 朴晟義, 앞의 글 등에서는 시조 형식의 중심을 이룬 ‘3·4조’가 七言絶句의 3·4조, 五言絶句의 2·3조 등의 律調와 자수의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을 추측하였다.

36) 鄭炳昱, 『漢詩絶句와 時調와의 比較』, 『韓國漢文學研究』 3·4(韓國漢文學研究會, 1978), 재수록: 정병욱, 『한국 시가문학의 탐구』(신구문화사, 1999), 82면 참조.

37) 權斗煥, 『時調의 發生과 起源』, 『冠嶽語文研究』 18(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24~25면.

38) 金台俊, 『中國時調小論』, 『東亞日報』 1932. 1. 11 참조.

39) 李慶善, 『比較文學』(釜山: 國際新報社. 出版部, 1957), 51~120면 등 참조.

종장이 ‘전환’을 통해 시상을 맺는 양상을 보이는 것⁴¹⁾도 한시의 起承轉結 구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⁴²⁾ 그러므로 시조의 기원이나 발생이 선행하던 우리 시가장르를 변형 계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발달에 한시(특히 근체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체시 이외의 중국 시가장르가 시조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詞를 들 수 있다.

시조가 융성하던 때인 1613년에 申欽(1566~1627)이 그의 시조 작품 29수를 長短句로 번역하여 ‘放翁詩餘’라 이름하였는데,⁴³⁾ 이는 그가 시조를 ‘詩餘’ 곧 사와 유사한 장르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바일 것이다.

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짧은 서정시로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부른다는 면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했으니, 그 시적 성격 면에서 시조와 적잖이 상통하는 것이다. 이 사가 이미 12세기 무렵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인들의 관심을 적지 않게 끌었던 데다, 시조를 사와 유사한 장르로 인식하고 사로 번역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시조의 발달에 사가 다소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⁴⁾

40) 鄭惠媛, 『時調의 표현기법에 끼친 漢詩의 영향』, 『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論叢』(창작과비평사, 1983), 재수록: 정혜원, 『한국 고전시가의 내면미학』(신구문화사, 2001), 89~95면에서는 시조 작품들에 적지 않게 쓰인 對偶法·問答法·設疑法·否定法 등의 수사적 기법이 한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41) 鄭惠媛, 『時調의 의미구조 분석』, 석사학위논문(서울대, 1970), 재수록: 같은 책, 331면에서는 대부분의 시조 작품들이 종장에서 내용의 變轉과 함께 의미의 피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42) 시조의 구성이 과연 3단 구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시조의 구성을 3단 구조로 보는 것은 대체로 그 3行의 구성이나 時調唱의 3章式 분단에 따른 바이지, 그 시상이 ‘起(序)-敍(本)-結’의 3단 구성이나 ‘대전제-소전제-결론’ 또는 ‘正-反-合’ 등의 3단논법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견해라고 하기 어렵다. 趙潤濟는 시조의 구성을 제1·2행이 한 단위가 되고 제3행이 한 단위가 되는 전·후 2단 구성으로 보기도 했다. 趙潤濟, 『時調의 本領』, 『人文評論』 2-2(人文評論社, 1940), 재수록: 趙潤濟, 『朝鮮詩歌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179면 등 참조.

43) 그의 문집인 『象村稿』(전 60권)에는 없고, 金天澤, 『靑丘永言』(朝鮮珍書刊行會, 1948), 29~37면에 실려 있다.

44) 韋旭昇, 앞의 책, 66면에서는 ‘口語化·됨·노래로 부를 수 있음·짧고 서정에 편

아무튼 시조의 발달에는 중국계의 한시(특히 절구 등의 근체시)는 물론이고 사도 다소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歌辭

가사도 원대까지의 중국시가의 여러 장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 발생하고 발달한 장르이다. 그리고 그 주된 담당층도 한문학을 숭상하고 중국문학에 관심을 갖던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발생 및 발달에도 중국시가의 영향이 다소간 있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가사에 영향을 끼쳤을 중국 시가장르로는 무엇보다도 辭·賦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가사의 문학적 성격을 중국의 사부와 비슷한 것으로 말하기도 했고, 또 가사 작품의 漢譯에서도 주로 사부의 양식을 썼는데,⁴⁵⁾ 이는 곧 그들이 가사를 중국의 사부에 비의될 수 있는 유사한 장르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李慶善은 가사가 그 형식과 문학정신에서 사부와 가장 가까운 문학 장르라고 보고, 양자간의 공통성을 여러 면에서 살펴서 가사가 사부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고 전개되었다고 했다.⁴⁶⁾ 양자가 문학적 성격 면에서 공통적으로 朗誦體의 문학(讀式詩)이었다는 점과, 내용 면에서 제제가 광범위하고 묘사적·서술적이며 抒情·敘事·詠物의 三體를 지닌 폭넓은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가사의 발생 및 전개시기에 우리나라의 문인들이 사부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의 여러 면으로 보아, 가사와 사부는 절대적인 영향관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이 견해는 가사에 끼친 사부의 영향을 면밀한

리함' 등에서 시조와 유사성을 지닌 중국의 詞(및 散曲)가 시조의 발생에 유발적·촉매적 역할과 본보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45) 洪萬宗의 『旬五志』 등에서 가사 작품들을 설명한 말인 '論·述·說·狀·伸言·鋪張' 등은 사물을 '鋪張敘述'함을 주된 특징으로 한 賦의 성격과 합치된다. 그리고 『俛仰集』에 실린 <俛仰亭歌>의 漢譯과 『松江別集追錄』 등에 실린 金相肅의 <思美人曲>·<續美人曲> 한역은 전형적인 辭賦의 면모를 갖추었고, 奇正鎮의 <星山別曲> 한역에서도 결어 부분의 허두에 '重曰'이라는 말을 쓰는 등 사부의 모습을 보인다.

46) 李慶善, 『松江歌辭의 比較文學의 試考』, 『學報』 1(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1958); 『歌辭와 辭賦의 比較研究』, 『中國學報』 6(韓國中國學會, 1967).

47) 李慶善, 『歌辭와 辭賦의 比較研究』, 재수록: 李慶善, 『韓國比較文學論考』(一潮閣,

분석에 의해 체계적으로 살폈기에 적지 않은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보아 가사의 발달에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부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가사와 사부 간에는 문학적 성격 면뿐만 아니라 구성방식 면과 주제 및 제재 면에서나 표현 면에서도 유사성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그 형성이나 발생에서 사부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뚜렷이 구명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가사에 詞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은데,⁴⁹⁾ 그 논의는 대체로 가사가 경기체가의 붕괴로 생겨난 계승장르라는 관점에 따라, 사가 경기체가의 형식에 영향을 끼쳤으니 그 계승장르인 가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 전제가 되는 관점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데다가, 경기체가 및 가사와 사의 형식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며, 또 그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가사와 사는 문학적 성격 면에서 서로 이질적이기도 하다.⁵⁰⁾ 그러므로 가사의 발생이나 발달에 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는 설득력을 지니

1976), 100~120면 참조.

한편, 李慶善은 가사의 문체가 對偶法 등의 여러 면에서 駢儷體와 공통된다고 하여, 변려문도 가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러나 가사체와 변려체 사이의 그 문체상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六朝 이래 唐代까지의 형식주의적 문학들이 일반적으로 지니던 것으로서 변려문만의 특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漢代의 부가 쇠퇴한 뒤 5~6세기에 성행한 排賦에서 부의 修辭에 더욱 공을 들여 對句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변려문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135~136면 참조), 그 하나의 일반적 현상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사부와 변려문이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논법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시가문학인 가사 및 사부는 산문문학인 변려문과는 문학적 성격 면에서 이질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체(변려체)와 장르(변려문, 부)를 구분하지 않은 데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서 韋旭昇, 앞의 책, 68면에서처럼 가사에 중국의 사부 특히 변려문체의 부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것이다.

4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慶善, 앞의 글, 100~112면을 볼 것.

49) 丁奎福, 앞의 글, 6면 등 참조.

50) 같은 글, 6면에서는 가사의 명칭이나 3·4조 혹은 4·4조의 자수율이 사의 영향을 입었고, 또한 가사가 운문이면서도 다분히 산문적 성격을 띤다는 점도 사와 공통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에서는 그러한 句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짧은 篇幅에다 抒情을 위주로 하는 그 문학적 성격도 긴 편폭에다 교술과 서정 등이 복합된 양상을 보이는 가사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의 특징과 의의

1) 특징

중국시가가 한국 고전시가에 끼친 영향은 시대와 장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 시가장르들의 형성 및 발달에 끼친 영향에서 일반적이거나 두드러진 현상들을 수신자(수용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發信體의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이입, 수용되어 한국 고전시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끼쳤거나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시가는 辭·賦, 詞, 散曲, 近體詩 등으로서, 중국에서 주로 상층의 문인들이 향유하던 장르들이다. 19세기까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숭상하여 수용코자 한 선진문화로서의 중국문화가 주로 그 상층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인들이 관심을 가진 중국의 시가장르들도 주로 상층 문인들이 향유하던 것들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새로운 문화를 섭취하여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거나 활력을 주고자 했던 당시 상층 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애초에 민간가요로 출발하였다가 상층 문인들에게 채택되어 그들의 시가로 발달하게 되었던 사와 산곡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민간에서 향유되던 가요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수용되지 않은 현상의 일면에서는, 그 민간가요들이 중국의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여 봐도 중국음악과는 판이한 우리나라의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향수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곧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와 어울릴 수 없는 중국 시가장르들은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이입되어 우리 시가에 영향을 끼쳤던 중국 시가장르들은 그 원산지에서는 형성 및 발달에서 선행 장르의 계승이나 극복이라는 성격을 다분히 보였다. 그러나 우리 시가에 영향을 끼친 양상은 이와는 무관하여, 중

국에서 서기전 4세기에 생겨나 서기전 2세기에 성행한 辭·賦가 신라시대의 사뇌가와 조선시대의 가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고, 중국에서 13세기에 생겨 14세기까지 성행한 산곡이 고려 후기의 시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에서 7세기에 생겨난 이래 계속 성행한 근체시가 조선시대의 시조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고, 중국에서 8세기에 생겨 13세기까지 성행한 詞가 고려 후기의 시가와 조선시대의 시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곧 영향을 끼친 양상에서는 그 발신체들간에 선행 장르의 계승이나 극복이라는 면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영향의 영역과 관련하여

중국시가가 우리 시가장르에 끼친 영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영역은 제재면과 표현 면이고, 이와 긴밀한 관계를 지닌 주제 면에서도 중국시가의 영향은 적지 않은 편이다.⁵¹⁾ 이러한 점은 특히 시조와 가사 등 조선시대의 시가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시가의 이입과 수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영향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당시의 우리나라 상층 문인들이 중국시가 작품들에 나타난 제재와 표현, 그리고 주제 등에 친숙해지게 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시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형식의 면에서는 중국시가의 영향이 그리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押韻의 경우는 우리말의 특성상 이를 뚜렷이 구현하기 어려우므로,⁵²⁾ 중국시가의 압운 양상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리듬의 경우에도 그 주된 결정 요소인 악센트(accent)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⁵³⁾ 중국시가의 리

51) 그 구체적인 양상은 韋旭昇, 앞의 책, 93~98면, 129~135면, 139~153면, 그리고 275~277면 등을 참고할 것.

52) ‘語根+語尾’로 된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놓이는 우리말의 構文의 특징에 따라 우리 시가의 시행들 끝에는 몇몇 일정한 형태 및 소리를 지닌 말들(‘-다’, ‘-고’ 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지만, 그 양상은 脚韻의 효과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일정한 규칙적 패턴을 형성하지도 못한다. 성호경, 『한국시가의 형식』(새문사, 1999), 33~39면 참조.

53) 중국어에서는 高低(pitch)가 악센트의 주 요소임에 비해, 우리말에서는 ‘음성학적 길이(duration)’가 악센트를 표시하는 자질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민재,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국립국어연구원, 1993), 48~49면 참조.

듬(平仄)이 우리 시가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고, 律格(meter)에서도 중국시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詩行의 구성에서도 詞나 散曲 등 악부 계통 시가의 長短句나 근체시 등의 齊言體의 영향을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편 구성에서, 시행수에는 중국시가의 구성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조의 시상전개 방식에 근체시의 起承轉結의 시상전개 방식이 다소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체가 등의 前·後節 구성과 고려 후기 및 조선 초기에 성행한 연형식에 산곡의 帶過曲과 重頭の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장르들에서 중국 시가장르의 시편 구성방식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 시가가 형식 면에서 중국 시가장르의 영향을 받은 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⁵⁴⁾

한편, 중국 시가장르들은 문학적 성격의 유사성 등을 통하여 우리 시가장르들의 발달에 지침이나 자극을 주는 면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람들의 몇몇 논급이나 漢譯에서 우리 시가의 특정 장르(사뇌가, 시조, 가사 등)를 특정한 중국 시가장르(賦, 詞, 辭·賦 등)에 比擬하거나 그 형식에 따라 번역하였는데, 그 양자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중국 시가장르의 성격과 발달 양상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와 유사한 우리 시가장르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발달의 방향을 정립함에 다소간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⁵⁵⁾

하나의 역사적 장르가 일정한 ‘외적 형식’(outer form; 독특한 율격이나 구성)과 ‘내적 형식’(inner form; 태도, tone, 목적 등)의 양자에 함께 기초한다고 할 때,⁵⁶⁾ 중국의 시가장르들은 우리 시가장르들에 ‘내적 형식’의 면 등에서

54) 韋旭昇, 앞의 책, 74면에서는 한시를 제외한 한국 시가장르들은 ‘내밀한 수용’의 방식에 의하여, 표면상으로는 중국 시가장르의 外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암암리에 그 경향·추세와 기풍을 받아들여 그것을 본보기로 하거나 그 속에서 계시나 방향 등을 취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양식과 특징을 충화, 계승하여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55) 같은 책, 355면에서는 이를 ‘잠재적인 촉매적 요소’라고 부르며, 한국 시가장르에 끼친 중국 시가장르의 영향은 심층에서 ‘저도 모르게 감화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작용했다고 하였다.

56)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Third Edition, London:

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지만, ‘외적 형식’의 면에서는 고려 말엽의 시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편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영향 양상의 통시적 변천과 관련하여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은 상고대의 시가와 삼국시대의 신라시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통일신라시대의 시가에서도 중국시가의 영향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는, 12세기 무렵까지는 남아 있는 시가 작품들이 몇 편 되지 않으므로 살피기 어렵지만, 후기에 들어서 특히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말에 이르는 동안에 중국시가가 산곡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시가계에 장르의 형성 및 발달의 골간이 되는 구성방식 등에서 뚜렷한 영향을 널리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제·제재·표현 면 등에서는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이 광범위하게 많이 나타나지만 구성방식 등에서는 그 영향이 그리 뚜렷하지 않아, 고려 후기에 비해 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바가 감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문 수용의 확대와 한문 사용능력의 향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 따른 바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시가에서 중국시가의 영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현상은 8세기 무렵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문 사용능력이 그리 높지 않았던 사실에 기인한 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중국시가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고 직접적인 양상을 보인 것은, 12세기 중엽 무렵에 宋과의 교류가 두절되고 나서 13세기 후반 이래 14세기 중엽까지의 원 간섭기 동안에 고려 사회가 원과 이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당시 원에서 성행하던 제반 문물을 활발히 받아들여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입게 된 현상⁵⁷⁾의 일환인데, 이는 적지 않은 고려 상층인들이 원의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그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다.

Peregrine Books, 1963), p.231.

5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563~583면 등을 볼 것.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그 통시적 변천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외국시가를 수용하여 그 영향을 받는 데서는 수용자측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용환경으로서의 우리나라 시가계 자체의 사정 곧 내부적 전통의 형성 및 정립 양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상층 문인들이 고유문화에 대한 애호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사뇌가 등의 고유 시가장르를 발전시켜 나갔기에, 중국시가의 영향이 그리 크게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들어 사뇌가의 쇠퇴와 중국문화 숭상 기운의 고조 등으로 인해 10세기 무렵부터 고유 시가계가 내부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한동안 침체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⁵⁸⁾ 상층 문인들은 그 무렵 중국에서 성행하던 시가장르를 수용하여 그 외래적 영향을 적지 않게 입은 시가장르들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후기의 시가계를 새롭게 열어 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이래 상층 문인들에게 중국계의 근체시가 ‘본격적인 문학’으로서 확고히 자리잡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계는 고려 후기에 새로 형성된 시가장르들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의 내부적 전통의 계승 및 극복을 위주로 하여 다시 조선적인 시가장르들을 모색,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갔던 것이다.

곧 우리나라 시가계의 내부적 전통의 형성 및 정립이 뚜렷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중국시가의 영향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중국시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 시가계의 내부적 전통의 형성 및 정립 양상이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의 변천에서 가장 중

58) 趙潤濟, 『韓國文學史』(東國文化社, 1963), 53~57면에서는 고려 전기를 한문학의 발달과 그 압력으로 인해 고유문학이 위축된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金學成, 『고려시대 시가의 장르현상』, 『人文科學』 12(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3), 재수록: 金學成, 『國文學의 探究』(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41~67면에서는 고려 전기를 향가가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기존 장르들의 양식적 변용에 의한 수용시기 또는 실험기로 보았다.

한편, 국사학계에서는 12세기 중엽까지 성장하였던 고려 전기의 귀족문화가 武臣亂(1170)에 의해서 무너졌다고도 한다. 金哲俊, 『韓國文化史論』(지식산업사, 1976), 130면 참조.

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의

앞서 살핀 바처럼, 우리나라에 이입, 수용되어 우리 시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친 중국시가는 중국의 상층 문인들이 향유하던 장르들로서, 우리 시가의 수준을 높이거나 쇄신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도 어울릴 수 있던 것에 국한되었고, 영향을 끼친 양상에서 그 발신체들간에 선행 장르의 계승이나 극복이라는 면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시가가 우리 시가장르들에 끼친 영향이 ‘내적 형식’의 면에서는 적지 않지만, ‘외적 형식’의 면에서는 고려 말엽의 시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문학의 결정 요인이나 문학사의 추진력으로 형식이 내용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데서 그 형식이란 주로 ‘외적 형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시가장르들의 주된 결정 요인인 형식(‘외적 형식’) 면에서 중국 시가장르들의 영향이 그리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 시가의 발달이 자체의 내부적 전통의 계승이나 극복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졌지, 중국시가의 영향이 그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중국시가가 끼친 영향 양상의 통시적 변천에서 우리나라 시가계의 내부적 전통의 형성 및 정립 양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중국시가의 영향은 대체로 우리 시가계 자체의 내부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위에서, ‘지식의 획득에 의한 정신적 향상, 예술적 수법의 모방에 의한 기교의 개변, 新思潮의 발효, 중국의 감각에 조화되어 진동하는 감각적 공감 등’⁵⁹⁾을 통해 우리나라 시가를 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였다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고전시가가 온통 중국시가의 영향을 입었다거나 또는 그 발달이 중국시가의 영향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⁶⁰⁾은 실상과 맞지 않은 지나친 견해라고 하겠다.

59) Paul Van Tieghem, *La Littérature Comparée*, 金東旭 역, 『比較文學』(新楊社, 1964), 76면 참조.

60) 趙潤濟, 『國文學概說』, 434면, 440면 등에서는 국문학의 전 영역에 걸쳐 한문학

중국시가의 수용과 그 영향은 한국 시가장르들의 발달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한국시가의 창조 및 발달을 담당하고 있던 상층 문인들은 선진문화로서의 성격을 띤 중국 시가장르들을 수용하여 그 시적 대상의 설정과 표현법 등을 참고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한국 시가장르들을 발달시켜 나갔기에, 한국시가는 풍부하고 다양한 제재 및 주제와 표현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면은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중국시가를 활발히 받아들인 이후인 8세기에 수준 높은 사녀가 작품들이 지어지게 된 것도, 사녀가장르 자체의 발달에 따른 면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영향의 결과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시가장르들이 구현한 문학적 성격과 그 지향방향이 한국 시가장르들의 정립에 지침이나 자극이 되어주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중국시가는 대체로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한국 시가장르들의 발달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유시가계에 침체상태에 놓여 있던 고려 후기에는 중국 시가장르가 우리나라 시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모델(모형)로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시가의 수용이 한국 시가장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문학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해 고유문학이 자유스럽게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문인들이 지녔던 중국문학에의 의뢰성이 고유문학의 탄생과 성장을 저해하고 그 생기를 억눌렀다는 점이 지적되곤 한다.⁶¹⁾ 19세기까지의 상층 문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중국계 시가인 한시의 창작에 크게 힘 기울였고, 우리말 시가의 창작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로 우리 시가장르가 수준 높고 활기차게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폐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고려시대 이래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본격적인 시가, 정통적인 문학으로 대접받으며 우리 시가계에 확고히 자리잡아 발달해 나간 근체시의 경우에 국한될 뿐이지, 여타 중국 시가장르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국시가의 수용이 끼친 영향의 일반적인 양상

(중국문학)이 영향을 끼쳤으며, 국문학이 형성되고 일어남이 모두 한문학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61) 같은 책, 441면 및 韋旭昇, 앞의 책, 370면.

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고전시가에 영향을 끼친 중국시가는 주로 중국에서 상층 문인들이 향유하던 장르들인데, 신라시대 詞腦歌의 발달에 辭·賦가 다소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고, 고려 후기 시가들의 형성 및 발달에는 散曲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詞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조선시대 시조의 발달에는 近體詩의 영향이 있는 데다 詞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고, 가사의 발달에는 사·부의 영향이 뚜렷하다.

중국시가의 수용은 우리 시가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이 우리 시가의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우리 시가의 발달은 자체의 내부적 전통의 계승 및 극복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시가의 영향은 대체로 우리나라 시가계의 내부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위에서 우리 시가를 보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였다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야 온당하지, 한국 고전시가의 발달이 거의 온통 중국시가의 영향에 따랐다는 등으로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고전시가장르의 형성 및 발달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하여 한정된 국면에서나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지만, 그 논의가 개별적 연구에서의 불충분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데다, 형식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고 제재 및 주제와 표현 등의 면에 끼친 중국시가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에, 그 결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일찍이 우리나라에 이입, 수용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상층 문인들에게 본격적인 시가로 확고히 자리잡아 발달해 나가서, 한국시가(‘한국 한시’)로서의 성격도 띠게 되었던 근체시를 중국 시가장르로만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필자는 불충분한 것이나마 이 시론적인 고찰의 결과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

로 보다 갖추어지고 충실한 종합적 연구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심화된 개별적 연구가 진척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 고전시가 제 장르들의 양식과 그 형성 및 발달의 요인 및 계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필자 :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Abstract>

A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Chinese Poetry on Korean Poetry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enres —

Seong, Ho-gyong

Up to the 19th century the literati of the upper class in Korea had received various kinds of poetry genres of China and made progress in quality of Korean poem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cal Korean poetry. However, they thought highly of the Sino-Korean poetry in the recent style and put much effort in its writing. Such atmosphere deterred the Korean poetry from developing itself in quality and liveliness.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poetry on the Korean counterpart was prominent in the selection of materials and the way of expression. It also was distinct in the theme of poetry, while it was not that distinct in the form.

While the reception of the Chinese poetry had no litt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etry, it is thought not to have played any central or pivotal rol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etry was made on the axis of the inheritance or conquest of its internal tradition. Therefore, the Chinese poetry may have to be understood as much as enriching and coloring the Korean poetry, based on the internal tradition of the latter. The scope and effect of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poetry should not be too much emphasized to the exten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etry

depended almost entirely on it.

Key Words : Classical Korean poetry, Chinese poetry, Sino-Korean poetry
(Recent style poetry), genre, form, influence, reception,
tradition, formation, development